



###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①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 (6)-종로·열반당·장경각·조사당·종루·고루

### 도서관 두어 경전 · 조사어록 대출

#### 종로(衆寮)

종로는 선원의 승당(선당)에 부속된 요사(寮舍)로서 간경(經經)·휴식·일상 잡무 등을 보는 공간이다. 또 차를 마시는 곳으로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선원의 지대방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선방 옆에 딸린 한 칸 정도의 작은 방이 아니라 거리상 뜯겨 떨어진 별채로서 규모도 상당히 크다. 좌선·공양·취침은 승당(선당)에서, 기타는 모두 종로에서 했는데, 승당에 와서는 공양도 종로에서 했다.

장로종색 선사(1103년)가 편찬한 <선원청규> 요주(寮主)·요수좌(寮首座) 장에는 종로(衆寮)를 관리하는 요주의 임무에 대하여 서술한 곳이 있는데, “요주는 종로에서 기숙한다. 종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과 대중들의 의발(衣鉢)을 간수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로 본다면 이미 송조 무렵에는 승당 외에 별도로 종로가 신설되어 일상적인 잡무는 모두 종로에서 봤는데, 승당에서 했던 공양도 종로에서 한 것이다. 명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재당(齋堂, 식당)이 생기면서 공양은 재당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조동종의 대표적인 선원 영평사는 지금도 여전히 종로에서 공양을 하는데, 이것은 승대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로에 대하여 영평사 도겐(道元, 1200-1253)은 자신의 저서 <번(번)도법(辨道法)>에서 “대중들이 운당(雲堂, 승당, 선당)에서 점심 공양을 마친 후 포단(蒲團, 방석)을 들고 종로로 가서 쉬는데, 간독상(看讀床, 앉은뱅이 책상)을 펴고 경을 보다가 포시(哺時, 오후 4시)가 되면 운당으로 돌아와 좌선한다”라고 쓰고 있다.

영평사 도겐이 참선 수행했던 곳은 남송 5산 가운데 세 번째인 천동사이다. 이곳은 목조선의 거장인 광지장각(1091-1157)이 30년 동안 주지(住持)로 있던 곳이다. 도겐은 여기서 24-28세까지 3년 반 동안 광지의 4대 법손인 천동여정(天童如淨, 1163-1228)으로부터 각별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귀국하여 후쿠이(福井) 오지에 영평사를 개창했는데, “간독상을 펴고 경을 보다가 포시(哺時)가 되면 운당으로 돌아와 좌선한다”는 대목을 본다면, 목조계통에서는 오후에는 좌선을 하지 않고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람 배치에서 종로의 위치는 승당(선당) 부근이 아닌 고원(庫院, 창고 및 주방) 옆에 있다. 종로가 고원 옆에 있는 것은 공양을 하고 차를 마시는 등 기능상 고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종로의 내부 구조는 승당과 거의 같다. 주로 가운데는 통로이고 사방에는 장련상(長連床, 앉을 수 있는 자리)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문수상이 아닌 관음상을 모시며, 안쪽(벽쪽)에 간독상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상적으로는 불립문자를 표방했지만 선당이 아닌 다른 당우에서는 책(경전과 어록)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불을 넣는 사물함 같은 것은 없는데, 그 이유는 종로는 생활 공간이지 취침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규모는 작지만 종로 바로 옆에는 파침처가 있다(영은사). ‘파침처(把針處, 바늘을 쥐다)’란 대중들이 옷 바느질을 하는 곳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해진 옷을 수선하는 곳이다. 여러 종류의 바늘이나 실 등을 개인별로 마련하기보다는 공동 수선처(修繕處)를 두었던 것이다. 공용 파침처가 있을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생활했는지 알만하다. 파침처는 여기 말고도 승당(선당) 밑이나 위에도 있는데, 바느질할 일이 많았던 것 같다. 하루 일과표를 본다면 바느질은 아마 오후 시간에 했을 것이다. 모두 모여서 바느질하고 있는 광경을 떠올리면 슬며시 웃음이 나온다.

종로를 관리하는 소임(직책)을 요주(寮主)·요수좌(寮首座)·요원(寮元)·좌원(寮元)·지료(知寮)라고 한다. <선림상기전> 요원(요주) 장에는 “요원은 종로에 비치되어 있는 경문(經文)과 일용 물건, 그리고 차(茶)·숯(炭) 등을 관리하며 청소 등을 담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종로 안의 모든 물건이 분실되지 않도록 요주는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등 철저히 관리했다.

#### 열반당(涅槃堂)

열반당은 노승이나 병에 걸린 스님들을 수용·치료하는 곳, 또는 요양하는 곳이다. 이름 그대로 임적이 가까운 수행승들이 묵는 곳이다. 사실 이곳은 수행자 개인에게는 서글픈 곳일 수도 있다. 모든 수행승들은 두 눈 밝혀 참선을 하고 있는데, 열반당에 누워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열반당의 이칭은 매우 많다. 연수당(延壽堂)·무상원(無常院)·성행당(省行堂)·장식료(將息寮)·중병각(重病閣)·안락당(安樂堂) 등.

연수당(延壽堂)은 수명을 연장하는 곳이라는 뜻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곳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곳이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목숨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명을 더 누린다는 것[延壽]은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중병으로 오래 연명하니보다는 차라리 천상이나 극락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무상원(無常院)이라는 말은 제행무상에서 따온 말이다. 유행적인 모든 것은 무상한 것임을 실감하라는 뜻일 것이다. <석씨요람> 하(下)에는 “무상원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로서 열반당의 이칭이다. 무상원은 인도 기원정사에 있는 49개의 외원(外院, 별원) 가운데 하나로서 정사의 서북쪽에 있다. 대중 가운데 중환자를 이 원에 보내어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집착을 끊고 안락국(극락)에 왕생케 하는 곳이다”라고 쓰고 있다.

성행당(省行堂)은 행실을 살피라는 뜻이다. 열반에 즈음하여 평소 행실을 살펴보는 것인데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신의 행실, 수행을 살펴서 부끄럽지 않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만, 계를 피우면서 공부한 것이 없다면 여기에 이르러 깊은 회한이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불행(破車不行), 부서진 수레가 굴러갈 수는 없는 일이다.

장식료(將息寮)는 장차 휴식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중병각(重病閣)은 말 그대로 중환자실이다. 열반당에서 치료해도 차도가 없을 때는 중병각으로 옮겼는데, 이곳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시 나오지는 않는 드물었다고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임종에 이르러 열반당이나 연수당, 중병각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곳을 거쳐서 가게 된다.

열반당에서 노승이나 병든 수행승들을 돌보는 소임을 연수당주(延壽堂主)·열반두(涅槃頭)라고 한다.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간병(看病)이라고 하는데, 의사 겸 간호사인 셈이다. 정성들어 탕약을 쓰고 잘

# 조사당에 달마·백장·개산조 모셔

## 마음 너그러워 자비스런 스님에게 간병소임

## 종·북 울려 큰일 알리고 일상사는 목어·운판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선종사원에 장경각(루)이 있다는 것은 교(敎)를 도외시한 채 일반적으로 선(禪)만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사진은 해인사 장경각. 아래는 장경각 내부 모습.



은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도 차도가 없을 때는 육류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무작도충(無着道忠, 1653-1744)이 저술한 <선림상기전>에는 “연수당주는 마음이 너그럽고 인내할 줄 알며, 도심(道心)으로 돌보고 인과를 잘 알아서 병승(病僧)을 편안하게 간병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그 밖에도 무려 2쪽에 걸쳐서 연수당주의 마음 자세와 절차, 치료법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간병 소임을 맡은 이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스럽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열반당이나 연수당이라고 하는 당우는 없고 한 칸 정도의 조그만 간병실이 있을 뿐이다. 농담 삼아 나이 많이 드신 스님이나 곧 임적할 스님을 ‘열반당 스님’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고, 때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스님을 ‘열반당에 갈 스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묵언 수행을 해야 하는 수행자가 실없이 말이 많다면 육체는 온전해도 정신은 이미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장경각

경장(經藏)·장전(藏殿)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서는 흔히 장경각(해인사 장경각 등), 판전(版殿, 봉은사 판전)이라고 한다. 근래 중국에는 대부분 장경루(藏經樓)라고 하는데, 이곳은 대장경과 조사어록 등 전적(典籍)을 관리 보관하는 곳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서관인 셈이다.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선종사원에 장경각(루)이 있다는 것은 교(敎)를 도외시한 채 일반적으로 선(禪)만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장전(藏殿)의 책임자를 지장(知藏)·장주(藏主)라고 한다. 도서관으로서 선원의 6두수 가운데 제 3위일 정도로 높다. 지장·장주는 우리나라에서도 드 드는 말인데, 그 임무는 주로 경전의 대출과 열람, 관리 등을 담당한다. 수행승들은 좌선 시간 외에 개별적으로 경전과 어록을 대출하여 장경각 옆 또는 승당(선당) 옆에 있는 간경당(經經堂)에서 읽었다. 종로에서도 읽었는데, 대출을 관리하는 장부도 있어서 매우 체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조사당(祖師堂)

선종의 조사를 받들어 모시는 당우를 조사당(祖師堂)·조사전(藏殿) 또는 조당(祖堂)·조전(祖殿)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총림의 최고 어른을 ‘방장’이라고 하고, 선원의 최고 어른을 ‘조실(祖室)’이라고 하는데, 조실은 조사당·조당에서 나온 말이다. 1900년대 초에는 조당과 조실을 혼용했다. 또 조실을 주실(籌室)이라고도 했다.

조사당에는 세 분의 조사를 모신다. 중앙에는 처음 선을 전래한 보리달마의 상을, 그 오른쪽에는 당중기 총림제도를 확립한 백장회해 선사의 상을, 왼쪽에는 해당 선원을 창건한 개산(開山)조사의 상을 받들어 모신다. 또는 2조해가나 육조해는, 마조도일의 상을 모시기도 하는데 <적수백장정규>에는 달마

와 백장회해, 그리고 개산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백장선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 종루(鐘樓)와 고루(鼓樓)

종루(鐘樓)는 범종(대종)을, 고루(鼓樓)는 큰 북을 달아 두는 누각이다. 종루는 산문 우측에 있고 고루는 좌측에 있다. ‘루(樓)’라고 한 것으로 봐서 건축 양식은 단층이 아닌 2층임을 알 수 있다. 종과 북은 모두 위층에 매달아 두는데, 그 이유는 높아야만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사원은 무언(無言)이다. 대신 종과 북, 목어와 판(板)으로 공식적인 일들을 고지(告知)한다. 주지의 상당실범·소참·보설(普說)·공양·예불·율력·취침 등 대중들이 모두 모여야 하는 일을 알릴 때는 주로 대중과 북을 쳐서 알리고, 작은 일이거나 부분적인 일은 판(板)이나 목어를 쳐서 알린다. 종과 북 등은 어떻게 몇 번을 치느냐에 따라 고지 내용이 다르고 그 소리에 따라 대중들은 행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석예불과 사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는 종과 북, 목어를 치고, 기타는 모두 목탁을 쳐서 알린다. 목탁을 쳐서 알리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송대 천동사와 영은사 가람 배치도를 보면 7당이나 종로·종루·고루 외에도 수륙당·단과료·토지당·윤장(輪藏)·몽당(蒙堂)·후가(後架)·유나료·직세료·지계료·수좌료·전자료(前資寮)·세면처(洗面處)·조심료(照心寮)·시자료(侍子寮)·행자료(行者寮)·묘엄당·회랑(回廊) 등 많은 당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지면이 허락되면 쓰고자 한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 1. 그을음이 없습니다.
-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 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 3. 한봉 밀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행화 등에 김밥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궁예양초



- ① 밀납 아랑 연꽃 양초 7.0 f x 33cm
-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 f x 18cm
- ③ 약육 1호 그림 양초 5.9 f x 18cm
- ④ 약육 아랑 연꽃 양초 7.0 f x 33cm
- ⑤ 밀납 PC양초 5.5 f x 4cm(연소시간 약 8시간)
- ⑥ 한봉 규장경 세트 5.9 f x 18cm

#### 한밀납 양초



- ① 밀납초 90cm x 90cm
- ② 밀납초 연봉 완기둥 7.0 f x 34cm
- ③ 밀납초 돈타래 5.6 f x 27cm
- ④ 밀납초 밀대 4.7 f x 25cm
- ⑤ 밀납초 1호 5.9 f x 18cm
- ⑥ 밀납초 2호 5.9 f x 14cm
- ⑦ 밀납초 3호 4.7 f x 13cm
- ⑧ 밀납초 4호 4.7 f x 10cm
-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f x 10cm
-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 f x 13cm
-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 f x 14cm
-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 f x 18cm
- ⑬ 밀납초 밀대 전사재반야심경, 연화
- ⑭ 밀납초 돈타래 전사재반야심경 연화(초영이동)
- ⑮ 밀납초 연봉 완기둥 전사재반야심경 연화(초영이동)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